

[기출의 파급효과 국어 주간지]  
Run-up (문학)  
- 3주차 -

제작 : 박영호, 유정혁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11A [31~33]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것이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코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현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①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샅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 - 지금의 동서 - 은 연신 뼈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찼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서 있는 **속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결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이, ②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

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③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④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옥희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홍,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홍, 잡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⑤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홍,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ерж게 폈다.

⑥ 나는, 젓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젓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

다.

㉠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 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2.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②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③ [고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④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회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라는 말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숨을 죽이고 지그시 아픔을 견디며, 또 하나의 아픈 날을 회상한다. 꼭 이만큼이나 아팠던 날을.

그것은 아마 나의 고가(古家)가 헐리던 날이었을 게다.

남편은 결혼식을 치르자 제일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다. 터무니없이 넓은 대지에 불합리한 구조로 서 있는 **음침한 고가**는 불필요한 방들만 많고 손댈 수 없이 퇴락했으니, 깨끗이 헐어 내고 대지의 반쯤을 처분해서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는 것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소리였다. 반대할 이유라곤 없었다.

**고가**의 철거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나는 그 해체를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지켰다.

우아한 추녀와 드높은 용마루는 현 기왓장으로 해체되고, 웅장한 대들보와 길들은 기둥목, 아른거리던 바둑마루는 허술한 장작더미처럼 나자빠졌다.

술한 애환을 가려 주던 <亞> 자 창들이 문짝 장사의 손구루마에 난폭하게 실렸다.

㉠ 남편은 이런 장사꾼들과 몇 푼의 돈 때문에 큰소리로 샅대질까지 해 가며 영악하게 흥정을 했다.

남편 하나는 참 잘 만났느니라고 사돈댁 - 지금의 동서 - 은 연신 뼈드러진 이를 드러내고 내 등을 쳤다.

이렇게 해서 나의 고가는 완전히 해체되어 몇 푼의 돈으로 바뀌었나 보다.

아버지와 오빠들이 그렇게도 사랑하던 집, 어머니가 임종의 날까지 그렇게도 집착하던 고가. 그것을 그들이, 생면부지의 낯선 사나이가 산산이 해체해 놓고 만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가의 해체는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비롯된 것이었고 한번 시작된 해체는 누구에 의해서고 끝막음을 보아야 할 것 아닌가.

다시는, 다시는 아침 햇살 속에 기왓골에 서리를 이고서 있는 **숙연한 고가**를 볼 수 없다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이 해체되는 듯한 아픔을 의연히 견디었다. 실상 나는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쓸모없이 불편한 고가를 해체시켜 우리의 새 생활을 담은 새 집을 설계하듯이, ㉡ 나는 아직도 그의 아내로서 편치 못한 나를 해체시켜, 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었다.

쓸모 있고 견고한, 그러나 속되고 네모난 집이 남편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과, 잔디와 조그만 분수까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

모두가 남편의 뜻대로 되었다.

㉢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완강히 고집했다. 넓지 않은 정원에 안 어울리는 거목들이 때로는 서늘한 그늘을 주었지만 때로는 새 집을 너무도 침침하게 뒤덮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것들의 빛, 그것들의 속삭임, 그것들의 아우성을 가끔가끔 필요로 했다.

㉣ 그리고 보니 아직도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몰랐다.

‘나’를 등장시키는 1인칭의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네요. 먼저 나는 고가가 헐리던 아팠던 날을 회상합니다. 남편이 결혼식을 치르자 마자 먼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더니요. 반대할 표면적인 이유가 없었기에, 반대할 수 없었고 나는 너무 아팠다고 하네요. 나의 가족들이 그렇게도 아끼고 집착하던 고가가 낯선 사나이, 즉 남편에 의해 해체된 것이죠. 나는 고가의 행랑채에 구멍이 뚫린 날부터 이미 해체는 비롯된 것이며, 고가의 해체에 곁들여 나 자신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나는 후원의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로 고집했어요. 고가는 없지만 고가에 있던 나무들만큼은 남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들의 빛, 속삭임, 아우성이 가끔 필요하다고 해요. 나무들처럼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옥회도 씨 유작전이 있군.”

남편도 지금 그 기사를 읽고 있는 모양이다.

“죽은 후에 유작전이나 열어 주면 뭘 해. 살아서는 개인전 한 번 못 가져 본 분을.”

“...”

“흥, 그분 그림이 외국 사람들 사이에 꽤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모를 일이야.”

‘흥, 잠종의 상판을 헐값으로 그려 준 대가를 제법 받는 셈인가.’

“죽은 후에 치켜세우는 것처럼 싱거운 건 없더라. 아마 어떤 ㉠ 비평가의 농간이겠지...”

‘흥, 당신이 생각해 낼 만한 천박한 추측이군요.’

“에이 모르겠다. 예술이니 나발이니. 살아서 잘 먹고 편히 사는 게 제일이지.”

‘암, 몰라야죠.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그분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가 알 게 뭐예요.’

남편은 신문을 떨구고 기지개를 늘어지게 폈다.

㉡ 나는, 젓힌 그의 얼굴에서 동굴처럼 뚫린 콧구멍과

그 속을 무성하게 채운 코털을 보며 잠깐 모멸과 혐오를 느꼈다.

(중략)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젓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 부스스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붉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공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 박완서, 「나목(裸木)」-

옥희도라는 사람의 유작전에 대한 기사를 남편이 읽고 있어요. 남편의 의견에 대해 나는 혐오감, 모멸감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네요. 옥희도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는 걸 당신 따위는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옥희도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모멸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략 이후에는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해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은 눈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에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전적인 성격을 가진 작품이었어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의 '남편'의 행동은 ㉢에서 '나'가 지키고자 했던 대상을 보존하기 위한 '남편'의 배려심이 반영된 것이다.

→ 남편은 고가의 철거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보존하기 위한 배려심이 반영됐다? 말도 안 되는 선지죠? 바로 정답이네요.

② ㉠에는 '남편'의 행동 묘사를 통해 '남편'의 성격이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의 외양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

가 드러나 있다.

→ 장사꾼들과 영악하게 흥정하는 행동을 통해 남편의 세속적인 성격이, 남편의 콧구멍과 코털의 묘사를 통해 모멸과 혐오를 느끼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③ ㉠에서 '나'는 '남편'의 삶에 동화되고자 하지만, ㉢에서 여전히 '남편'에게 동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에서 남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다고 하며 남편에게 동화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이가 내 은밀한 곳에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며 아직 동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네요.

④ ㉠에는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고, ㉢에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돌발적 행위가 드러나 있다.

→ ㉠에서는 남편의 아내로서 편한 나로 뜯어 맞추고 싶다고 하며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드러나고, ㉢에서는 남편을 낯설어하는 그 느낌을 견딜 수 없어 돌발적인 키스를 퍼부어요.

⑤ ㉢에서 드러나는 '은행나무들'에 대한 '나'의 집착은 ㉠에서 나타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연결된다.

→ 은행나무들만은 그대로 두기를 고집하는 나의 집착은 아직 남편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나의 잠재의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2. [고가]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③

① [고가]의 철거 결정에는 '남편'의 실용적인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 고가를 헐어 쓸모 있는 견고한 양옥을 짓자고 한 부분에서 실용적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② **고가**의 철거를 주장한 '남편'은 '견고한 양옥'의 설계에  
서도 자신의 뜻을 반영하였다.

→ 남편이 원하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 부엌, 잔디와 조그만 분  
수가 있는 정원이 있는 아담하고 밝은 집이 되었다고 하네요,  
웁습니다.

③ **고가**의 철거는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남  
편'의 의지가 좌절된 사건을 의미한다.

→ 남편이 나와의 친밀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죠? 또  
이런 의지가 좌절될 리도 없구요.

④ **고가**는 과거의 '나'가 투영된 대상으로 '나'의 의식 속에  
환기되어 내면의 갈등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고가는 우리 가족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 대상이에요. 과거  
의 내가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를 뜯어 남편  
에게 편한 아내로 맞추고 싶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한 모퉁  
이가 있다며 내면의 갈등도 드러내고 있어요.

⑤ **고가**를 '남편'은 '음침한 고가'로, '나'는 '숙연한 고가'로  
표현하여 인물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남편은 고가를 음침하다며 부정적으로, 나는 고가를 숙연하  
다고 표현하면서 사라진 고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3. <보기>를 ㉠에 대한 '남편'의 속말이라고 가정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보 기> —

생전에는 주목하지 않던 옥희도를 사후에 높이 평가하  
는 것에는 원칙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라는 말  
이 생각나는군.

- ① 모래 위에 쌓은 성
- ② 고양이 쥐 사정 보듯
- ③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④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9AB [34~38]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뎀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뎀불」 -

(나)

㉠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찌른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전봉건, 「사랑」-

(다)

1

⑥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알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양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 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잎을 날리고, 들판마

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한혹구, 「보리」-

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④ (나)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상 전개의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①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태양을 의논하는 이야기가 거룩하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가 모순되는 상황이거나, 태양 앞에서는 하지 못하는 은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거룩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야 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달빛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화자를 비롯한 우리는 성터를 헤매이면서 태양을 모시는 이야기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태양을 모시는 이야기는 위에서 말했던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겠지요? 유기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쥐어뜯은 것은 우리가 태양을 모시는 것을 위해 겪은 고통, 아픔 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거룩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잃어버린, 떠나버린, 몸을 팔아버린, 마음을 팔아버린 벗들이 있다고 해요. 태양을 모시기까지 잃어버린 벗들이 많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태양을 모시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어요.

㉠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

그러는 동안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났어요. 서른여섯 해가 지나고 하늘을 다시 우러러보니 겨울 밤에는 달이 아직도 차지만, 돌아오는 봄에는 태양이 분수처럼 쏟아진다고 해요. 그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아늑히 안긴다고 하며 시가 끝납니다. 달이 아직도 차다는 부분에서 아직은 완벽하게 태양을 모실 수는 없지만, 오는 봄에는 어느 정도 태양을 모시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을 안고 꽃덤불에 아늑히 안기겠다는 부분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소망 등을 엿볼 수 있겠네요.

(나)

㉢ 사랑하는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은 뿌리째 뽑고  
그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은 모조리 잡고  
그리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서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의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은 뽑고, 흙 속의 해충은 잡고, 새 묘목을 심기 위해 흙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의 의미를 자연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도 어두운 밤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이다.  
흰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까지  
그 햇살을 뚫고 마침내 새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 뿌리면서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 전봉건, 「사랑」 -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모진 어둠이어도 그 어둠 그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 마침내 새 과목이 솟을 때까지 지키는 일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새 과목이 솟기 위해 흙을 깨끗이 해 주고, 어두운 밤을 새워서 지키고, 마침내 새 과목이 솟는 것을 지켜주는 일이 곧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의미를 과목

이 솟는 것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단순한 시였어요. 굳이 주제를 말하자면 사랑의 제대로 된 의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작품 설명을 해주는 보기가 등장했어요. 이 작품은 간단히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에 접목해서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보리와 인간을 연결해서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요. 어떤 가치들을 드러내려고 하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

1

⑥ 보리. 너는 차가운 땅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 왔다. 이미 한 해도 저물어, 벼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들인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하여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 깊이 묻어 놓았었다. 차가움에 응결된 흩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알이 부숴 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굳고 **차가운 땅속**에 깊이 심어 놓았었다. “씨도 제 키의 열 길이 넘도록 심어지면, 움이 나오기 힘이 든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 묻어 놓고, 이에 늦은 가을의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날개를 자주 저어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농부는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2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 버린 갯강변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지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 서리를 맞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논둑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빛을 잃어버리고, 그 맑고 높던 하늘도 검푸른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너, 보리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솟아 오르고만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地心) 속에 따스함을 찾아서 다 잠자고 있을 때, 너, 보리만은 억센 팔들을 내뻗치고, 셋말간 얼굴로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 왔다.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그 푸른 얼굴을 잃지

않고 자라 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 억눌러도, 너는 너의 푸른 생명을 잃지 않았었다. 지금,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너, 보리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 오는 그윽한 유월의 훈풍과 노고지리 우짖는 새파란 하늘과, 산 밑을 흰히 비추어 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이 없이 참고 견디어 왔으며, 삼월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직도 쌀쌀한 바람에 자라고 있었다.

3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어느덧 남향 언덕 위에 누렁던 잔디가 파아란 속살을 날리고,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음을 웃을 때면, 너, 보리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까지, ㉠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 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을 이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 위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푸르른 생명의 춤, 셋말간 봄의 춤이 흘러넘친다.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또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또한 자라난다. 아침 이슬을 머금고, 너의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노고지리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 대고,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다.

- 한홍구, 「보리」 -

보리의 생명력을 예찬하는 간단한 수필이에요. 1에서 보리는 온 겨울내내 차가운 땅속에서 열심히 자라왔어요. 차가운 땅속에서도 보리는 잘 자라고 있네요.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에서는 들국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잔디들은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은 검푸르게 되었는데 보리만은 하늘을 향하여 솟아오르고 있다며 보리의 강인함을 예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에서는 겨울을 견디고 봄이 되어서 보리의 봄의 춤이 벌어진다고 하며 온 세상을 보리로 덮고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보리의 강인한 모습을 인간의 삶에 접목해서 이해하면 되겠네요.

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가)는 험어진 성터와 꽃뎀불을 공간의 대조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는 볼 수 없죠?

②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색채어는 (다)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③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 역설적 표현은 세 작품 다 나타나지 않죠?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에 이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세 작품 다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하는 내용도 없어요.

⑤ 시련과 고난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는 광복이 오기 전의 시련, (나)에서는 과목이 솟기 전까지의 과정, (다)에서는 보리가 봄에 자라기 전까지의 과정을 드러내어 시련과 고난을 표현하면서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웁습니다.

5. ㉠~㉣에 나타난, 말하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③

①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가 '항상'을 통해 부각되고 있다.

→ 일상을 권태롭게 여기는 태도랑은 상관이 없네요. 권태란 어떤 것이 지루해지거나 싫증이 나는 태도지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 다.

② ㉡: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올 것에 대비하려는 태도가 '드디어'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드디어 광복이 됐다는 거지 불행했던 시절이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③ ㉢: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아직도'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완전히 광복이 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가 '아무리'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당황하는 태도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죠?

⑤ ㉤: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가 '이미'를 통해 부각되고 있다.

→ 보리가 온 누리를 뒤덮은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볼 수 있지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라고는 볼 수 없어요.

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②

— < 보 기 —

사랑이 이루어진 상황을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지극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만으로 사랑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하고, 그 대상을 빼앗으려 하거나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이는 연인은 물론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보기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랑의 결실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 바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① (가)에서 '혈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광복을 위해 혈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② (가)에서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벼들의 삶은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벼들은 광복을 포기하고 돌아선 벼들을 의미하겠죠? 지속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겠네요.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을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해충을 제거함으로써 사랑하는 보리를 위협하는 것에 맞서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네요.

④ (나)에서 '뱀'을 새우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고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그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 보리에 대한 관심과 위협적 상황에서 보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하죠?

⑤ (가)의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안기는 것과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

→ 꽃덤불과 새 과목이 솟는 것 둘 다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이기에 사랑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은 시상 전개와 단서로서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한다.

→ '사랑한다는 것은'이라는 시구를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말해주겠다는 시상 전개와 동시에 수미상관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맞는 설명입니다.

② ㉡는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어,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③ ㉠은 사물에 비유됨으로써 경외감을, ㉡는 다른 대상과 비교됨으로써 비장감을 자아낸다.

→ 보리에 경외감을 느끼는 내용은 없죠?

④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어,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되어 이후 드러날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은 시행 하나로 연이 구성되었고, ㉡는 낱말 하나로 문장이 구성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인간 소외의 양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⑤ ㉠, ㉡는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보 기〉—

「보리」에서 글쓴이는 파종된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접목하여 그 인격적 속성을 제시함으로써 보리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인내심을 드러내고 있군.

→ 땅 속에서 견디는 모습을 인내심이라고 볼 수 있죠?

②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진취적 자세가 나타나네요.

③ ‘생명의 보금자리’를 깊이 뿌리박고 자라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끈질긴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군.

→ 보리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죠?

④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을 통해,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성숙에 따른 겸손함?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 보리의 모습을 통해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